

군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수성*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 문 요 약

제대군인들은 전직준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사회적응력 부족과 그리고 오랜 군생활로 인한 유연성 부족 등으로 제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7천여 명 정도의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국가적 수준의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제대군인이 창업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제대 후 창업의사결정에서 어떤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특성, 인적 자본, 재정 자원과 같은 선행요인들을 볼 뿐 아니라,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복무 경험과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대군인들의 창업정책과 창업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최근 제대군인의 사회 취업 및 적응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제대군인들은 전직준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사회적응력 부족과 그리고 오랜 군 생활로 인한 유연성 부족 등으로 제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국가보훈처 조사결과와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5.4%로서 2005년 30%에 머물던 취업률보다는 증가했으나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사회전반의 이 기간 평균 사회고용률 65.5%에 비해 저조하며, 이는 94%의 취업률을 보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제대군인들의 취업률은 5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발표자료(2018.1.25)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경제 성장률은 3.1%로 낮고, 15~64세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61.3%로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제대군인들은 매년 7천여 명 정도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수준의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 창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이며, 향후 군 창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창업교육 분야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재정자원과 같은 선행요인들을 볼 뿐 아니라,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복무 경험과 특성이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제대군인들의 창업관련 정책과 창업교육에 반영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jss8071@naver.com

** drkim@kookmin.ac.kr

II. 이론적 배경

2.1.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자영업에 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분석은 경제 문헌에서 뜨거운 주제이며, 이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운데 7가지 범주로 분류된 12가지 개별 요소가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Nadia & Nuno(2016)는 논문에서는 7가지 범주로 분류된 자영업 진출의 12가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1.1 기본적인 개인적 특성

성별(Gender)은 성과 자영업(self-employment) 진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자영업에 진출하는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연령(Age)은 첫째,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자영업으로의 전환, 즉 일반 및 특정 인적자본, 금융자본 및 사회적자본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몇 가지 주요 자원을 평균적으로 보유한다.

둘째, 융통성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한 더 강한 욕구와 나이가 긍정적으로 연관 되어있다.

세 번째 추론은 자신의 경력이 끝날 때 노동 시장을 떠나는 나이를 연기하고자하는 개인을 위한 일자리 대안으로 자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상태(Marital Status)는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들(Children)의 영향은 자영업의 확률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우세하다고 하였다.

2.1.2 가족배경(Family Background)

자영업자가 부모(Parents)가 있는 것은 개인의 자영업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Spouse)는 자영업을 선택할 성향과 관련하여 배우자간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2.1.3 개인 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s)

Ekelund et al.(2005)는 위험회피 성향이 자영업자가 되는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1.4 인적 자본(Human Capital)

몇몇 연구에서 교육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기는 하지만(Borjas & Bronars, 1989), 자영업에 대한 교육의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다.

Jovanovic(1982)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개인들은 경험을 통

해 인적자본의 중요한 부분을 경험하게 되며, 많은 연구에서 이 요소가 자영업에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2.1.5 건강 상태(Health Condition)

나쁜 건강(질병 또는 장애)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다. 경험적 증거를 고려할 때 결정적인 것으로부터 멀다고 말할 수 있다.

2.1.6 국적 및 민족(Nationality and Ethnicity)

미국의 경우 Fairchild(2009)는 외국 태생인 것이 자영업 전환의 가능성을 26% 증가 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2.1.7 재정자원(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경제 문헌은 가계자산과 자영업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의 존재를 강조했다.(Evans & Jovanovic, 1989, Evans & Leighton, 1989).

2.2. 군 경험과 창업의도

Moutray(2007)는 군 복무로 특별한 경험을 쌓은 퇴역 군인은 유사한 개인보다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부(주택 소유 또는 자택의 가치)와 군 복무 경험은 자영업의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이 두 요소는 교육정도보다 자영업 추세를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Fairlie(2004)와 Hope & Mackin(2011)도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 보다 자영업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였다. Hope & Mackin,(2011)와 Moutray(2007)는 군 복무 경험은 자영업 확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군사경험은 개인이 타인을 이끌고 협력하며 자주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drienne(2017)는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제대군인들은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거의 두배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문헌에서 군 경험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2.3.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Crant(1996)는 잠재적인 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창업의도라 정의했다.

Balaceanu, et al.(2014)는 창업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비용의 새로운 산출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 했으며, Dollinger(2008)는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자원을 수집해 이윤추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제적인 조직의 설립을 창업이라 했다.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해볼 때, 창업의도란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제반활동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의도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창업활동을 밀고나가는 추진력이기도 하다(Wu et al. 2008). 또한 Katz & Gartner(1988)는 창업을 계획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2.4.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Bandura(1977)이다. 사회 인지학습 이론가로서 Bandura는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인지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와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때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인간 행동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Bandura(1997)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초월하는 분야보다는 현재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도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자신의 선택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b). 자기효능감은 청년기까지 노출된 다양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획득한 숙달된 경험,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 등 네 가지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된다(Bandura, 1982; Wood et al. 1989).

Salomon(1984)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업에는 더 큰 노력과 학습량을 보이는 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업에는 투입된 노력이나 학습량 모두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5.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Ajzen(1991)의 계획적 행동이론과 Bird(1988)의 기업가적 의도성 모델을 수정한 Boyd et al.(1994)의 기업가적 의도성 상황모델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rueger et al.(1994)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 위험, 역경, 불확실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하려는 신념이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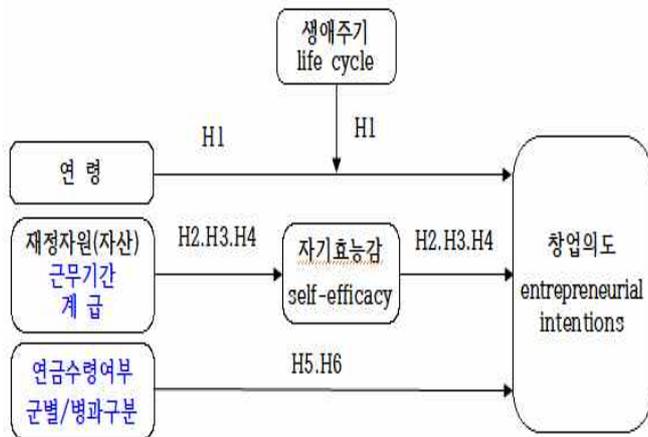
Ajzen(1991)은 개인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위의 통제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지각된 행위의 통제는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미래에 예측되는 어려움 인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말하며 자기효능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Krueger et al., 1994).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행위의 통제가 큰 것으로 지각하여 강한 창업의도를 갖게 된다.

창업의도 활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SEE로 알려진 Shapero(1982)의 창업 이벤트모형(Shapero's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이고 다른 하나는 TPB로 불리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이 두 가지 주장은 유사한 의도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rueger, & Brazeal(2000)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예측할 수 없었던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응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H1. 연령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애주기가 조절할 것이다.
- H2. 자산은 창업의도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근무기간은 창업의도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계급은 창업의도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군인연금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군과 병과에 따라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교육을 수강하는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5~10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간 50회에 걸쳐 2,400명의 진로 교육과 전직기본교육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561회 / 4,400명을 교육하고 있다. 창업기본교육은 6회에 걸쳐 300명, 창업심화교육은 연간 2회에 걸쳐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문은 국방전직교육원 교육을 수강하는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N=300)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은 기본설문, 취업 및 창업관련 설문, 창업의도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4.2. 분석방법

설문자료는 연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고,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집단들 간에 종속변수 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사용하려 한다.

참고문헌

김문범(2010).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성우(2014). 육군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승진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계급별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4), 350-373.

김용식·하규수(2011).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5), 2078-2086.

양안나·정철영(201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과정 연구. *진로교육연구*, 24(2), 1-24.

우석진(2010). 연구 논문: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2), 499-513.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이승렬·최강식(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83-103.

이영군·최복희(2010). 직업군인 가족의 삶의 질 실태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3, 25-45.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전승훈(2010).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12(1), 3-32.

정길호(201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방안.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3-20.

최양림·하규수(2012).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195-212.

Blanchflower, D. G.,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Fairlie, R. W.(2004).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 rates in the United States: 1979-2003*. SBA Office of Advocacy.

Heinz, A. J., Freeman, M. A., Harpaz-Rotem, I., & Pietrzak, R. H.(2017). American Military Veteran Entrepreneurs: A Comprehensive Profile of Demographic, Service History,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Military Psychology*, 29(6), 513-523.

Hope, J. B., & Mackin, P. C.(2011).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ship among veterans*. Annandale, VA: SAG Corporation.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Moutray, C.(2007). Educational attainment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 examination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Simoes, N., Crespo, N., & Moreira, S. B.(2016). Individual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ntry: What do we really kno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0(4), 783-806.